

## 다도에 담긴 깊은 뜻

일본사람들이 차를 마시는 방법을 배우는 데 적지 않은 수업료를 내는 것을 많은 외국인들은 이해를 못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다도(茶道)가 예술에 경지에 달해 있다고 여기고 있음

### □ 다도(茶道)란?

- 일본인들에게 다도는 차를 만들어 마시는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영위하는 목적과 사고방식, 그리고 차를 만드는 도구와 다실에 걸린 미술품까지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하는 예술임
- 즉 다실과 정원의 주거와 관련된 공간, 차 도구를 고르고 감상하는 공예, 차카이(茶會)에 나오는 가이세키(懷石, 다도에서 차를 대접하기 전에 내는 간단한 요리)와 와가시(和菓子) 등의 식생활, 손님을 정성껏 대접하기 위한 접대방법, 이들 모두가 조화롭게 융합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다도라 할 수 있음

### □ 종교와의 관련성

- 다도는 선종(禪宗, 불교의 일파)과도 깊은 관련이 있어 ‘와비(わび)·사비(さび)’라는 정신문화를 만들어 내기도 했음
- 와비·사비란 와비시이(侘しい, 적적하다)와 사비시이(寂しい, 외롭다)라는 충족되지 못하는 상태를 인정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을 뜻함
- 다도에서는 이러한 정신세계를 중요하게 여기며 조용한 다실에

서 차를 만드는 데 집중함으로써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함

- 또한 다도에는 이치고이치에(一期一会)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사람과의 만남을 일생에 단 한번으로 생각하고 상대에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 는 의미임

## □ 다도(茶道)의 전래와 정신

- 다도는 중국 당(618~907년)나라 시대에 일본에 전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그 후 가마쿠라(鎌倉)시대에 들어와 선종이 서민들 사이에 퍼지면서 다도문화도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음
  - 그리고 현재 다도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와비차(侘茶)를 완성시킨 것은 센노리큐우(千利休)라는 사람이며, 그가 죽고 난 후 자손들이 다도를 계승하면서 여러 유파로 갈라졌음
- 센노리큐우가 생각했던 다도의 마음가짐은 시키 시치소쿠(四規七則, 4가지 규정과 7가지 규칙)로 풀어볼 수 있음
  - 4가지 규정은 화경청숙(和敬清寂)의 정신을 뜻하는데, 화는 서로 사이좋게 화합하는 것, 경은 서로 존경하는 것, 청은 겉모습이 아닌 마음으로 청결하게 하는 것, 숙은 무슨 일이 있어도 동요하지 않는 마음을 뜻함
  - 7가지 규칙은 손님을 접대하는 마음가짐에 대한 것으로 ‘바른 마음으로 차를 짓고, 숯은 물이 끓을 정도로 적당히 놓고, 겨울은 따뜻하게 여름은 시원하게 하고, 정원에 꽃이 있도록 하고, 정해진 시간보다 서두르고, 비가 오지 않더라도 우산을 준비하고, 성심을 다해 손님을 맞아야 한다.’ 는 것을 의미함

## □ 다도(茶道)의 자세

- 다도에 쓰이는 차는 일반적으로 마시는 차가 아닌 맛차(抹茶)라는 진한 녹색 차를 이용함
  - 불을 지피고 물을 끓여 맛차를 잘 저어 마실 때까지 데마에(点前)라고 불리는 다양하고 복잡한 절차가 있는데, 이 행동을 규율에 어긋나지 않고 어떻게 품위를 지키며 하는가가 중요한 관건이 됨
  - 차를 대접하는 상대와의 교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주인은 초대한 손님을 위해 어떤 용기를 사용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차를 만들고 다실에 어떤 꽃을 장식하고 어떤 쪽지를 걸어 조화를 이룰 것인가를 생각함
  - 따라서 초대받은 손님 역시 주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세련된 교양과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함